

1
오민, ABA Video
201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50초

2
전소정, 따뜻한 돌
2015, 단채널 비디오, 13분 6초

3
차재민, 안개와 연기
2013, HD 비디오, 20분 40초

4
구동희, 비극경연대회
2003, 단채널 비디오, 15분 45초

5
배운환, 스튜디오 B로 가는 길
2018, 캔버스에 목탄, 아크릴,
196 x 250cm

6
정지현, 저편의 리듬
2014, 카운터, 흑연, 레진,
355 x 10.5 x 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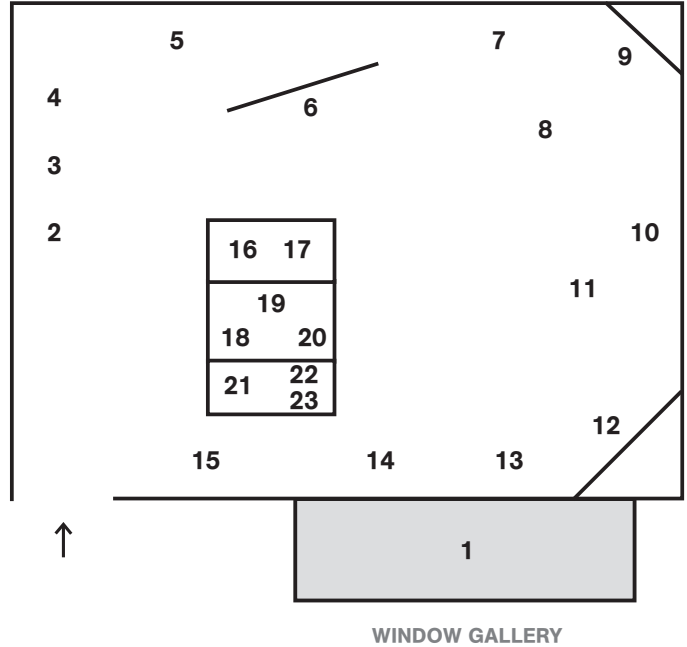
7
박광수, 부스러진
2017, 캔버스에 아크릴, 290.9 x 197cm

8
권오상, Dan Electro
2010-2012, c-print, 혼합매체,
155 x 93 x 36cm

9
장서영, Circle
2017, 단채널 비디오, 8분

10
이형구, Altering Features with H-WR
2007, 디지털 프린트, 121 x 121cm

11
정희승, Untitled
200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9 x 148cm



12
임영주, 요석공주
2018, 3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43분 10초

13
장파, <Brutal Skins>를 위한 드로잉
2016, 종이에 수채, 펜, 15.5 x 10.5cm(9점)

14
성낙희, Peak
2007, 캔버스에 플래쉬, 190 x 200cm

15
장지아, 고정된 오브제
2007, 흑백 인화지, 오줌 픽서, 27 x 27cm(10점)

16
최윤, 막다른 길 걷기_취구멍
2020, 콘크리트, 조약돌, 바퀴, 모형 쥐,
소라 껍데기, 46 x 54 x 34cm

17
김인배, 연산자
2009-2011, FRP, 알루미늄, 삼각대,
25 x 36cm(높이 가변)

18
구동희, Mess with One Guard and
You Mess with Them All
2012, 지팡이, 90 x 90cm

19
구동희, Re-freshman
2012, 신발, 가변크기

20
구동희, Re-freshman(2017)
2017, 구두박스 1쌍, 구두끈 1쌍,
Re-freshman(2012)에 대한 캡션,
30 x 25 x 25cm

21
황수연, 색이 섞이는 날
2019, 프린트, 아크릴 채색, 70 x 51 x 64cm

22
함진, Untitled 13
2011, 폴리머 클레이, 풀, 와이어, 낚시줄,
8.5 x 31.5 x 9cm

23
함진, Untitled 23
2011, 폴리머 클레이, 풀, 와이어, 낚시줄,
12 x 26 x 8.5cm

DOOSAN Gallery

(03129)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T. 02-708-5050 doosangallery.seoul@doosan.com
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지원합니다.

Maniera

Donghee Koo
Gwangsoo Park
Min Oh
Seo Young Chang
Sojung Jun
Jeamin Cha
Sue Yon Hwang

Osang Gwon
Yoon Hwan Bae
Hyungkoo Lee
Jia Chang
Jihyun Jung
Yun Choi

Inbai Kim
Nakhee Sung
Youngzoo IM
Jang Pa
Heeseung Chung
Ham Jin

DOOSAN Gallery
2023.11.15. – 12.16.

1

Min Oh, ABA Video

2016,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2min 50sec

2

Sojung Jun, Warm Stone

2015, single channel video, 13min 6sec

3

Jeamin Cha, Fog and Smoke

2013, HD Video, 20min 40sec

4

Donghee Koo, Tragedy Competition

2003, single channel video, 15min 45sec

5

Yoon Hwan Bae, Road to Studio B

2018, charcoal and acrylic on canvas,
196 × 250cm

6

Jihyun Jung, Distant Rhythm

2014, counter, graphite, resin,
355 × 10.5 × 9.5cm

7

Gwangsoo Park, Crack

2017, acrylic on canvas,
290.9 × 197cm

8

Osang Gwon, Dan Electro

2010-2012, c-print, mixed media,
155 × 93 × 36cm

9

Seo Young Chang, Circle

2017, single channel video, 8min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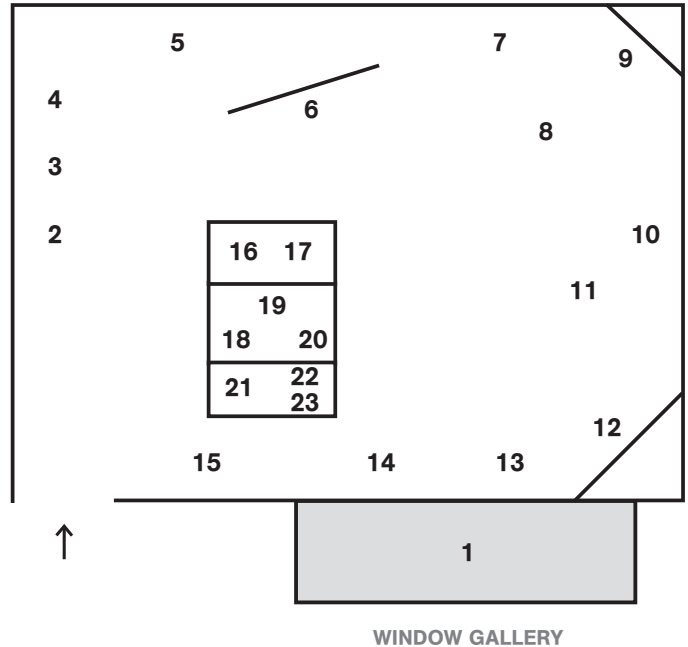
**Hyungkoo Lee, Altering Features
with H-WR**

2007, digital print, 121 × 121cm

11

Heeseung Chung, Untitled

2009, archival pigment print,
119 × 148cm



12

Youngzoo IM, Princess Yoseok

2018, 3 channel video, stereo sound,
43min 10sec

13

Jang Pa, Drawings for <Brutal Skins>

2016, watercolor, pen on paper,
15.5 × 10.5cm(9pcs)

14

Nakhee Sung, Peak

2007, flashe paint on canvas,
190 × 200cm

15

Jia Chang, Fixed Object

2007, b/w photographic paper, urine fixer,
27 × 27cm(10pcs)

16

Yun Choi, Walking the Dead End_rathole

2020, pebble, wheel, rat figure,
conch shell, 46 × 54 × 34cm

17

Inbai Kim, Operator

2009-2011, FRP, aluminum, tripod,
dimensions variable

18

**Donghee Koo, Mess with One Guard and
You Mess with Them All**

2012, cane, 90 × 90cm

19

Donghee Koo, Re-freshman

2012, shoes, dimensions variable

20

Donghee Koo, Re-freshman(2017)

2017, a pair of shoe boxes, a pair of
shoelaces, label of Re-freshman(2012)
30 × 25 × 25cm

21

Sue Yon Hwang, The Day Mixed Color

2019, printed paper, acrylic on paper
70 × 51 × 64cm

22

Ham Jin, Untitled 13

2011, polymer clay, glue,
wire and fishing line, 8.5 × 31.5 × 9cm

23

Ham Jin, Untitled 23

2011, polymer clay, glue,
wire and fishing line, 12 × 26 × 8.5cm

DOOSAN Gallery

(03129) DOOSAN Art Center 1F, 15, Jongno 33-gil, Jongno-gu, Seoul, Korea
T. 02-708-5050 doosangallery.seoul@doosan.com
www.doosangallery.com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구동희 (b.1974)

- 4 비극경연대회
- 18 *Mess with One Guard and You Mess with Them All*
- 19 *Re-freshman*
- 20 *Re-freshman(2017)*

구동희는 설치, 사진 혹은 영상작업을 통해 일상이나 언어 속에서 파생되는 모순된 상황이나 부조리함을 표현한다. 기존의 형식과 구조를 이용하거나 차용하면서도 이들을 일관성 없이 나열하거나 해체하여 이해를 방해하고 단절시켜 해석을 모호하게 만든다. 구동희에게 있어 ‘영상’이라는 매체는 단지 이야기를 조합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언어화 할 수 없는 순간과 감정들을 서술한다. 이렇게 특정 장치의 나열이나 해체로 서술된 이야기는 종종 관객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비극경연대회>(2003)는 11명의 전문 연기자들이 ‘비극 연기자 역할’을 눈물 연기로 해석하는 과정을 ‘경연대회’라는 경쟁 구도하에 스크립트 없이 기록한 실시간 상황 비디오이다. <Mess with One Guard and You Mess with Them All>(2012), <Re-freshman>(2012), <Re-freshman(2017)>(2017) 조각 작품들은 언어와 이미지의 연상관계와 관련된 작업으로, 문장의 오독에 의해 파생되는 부재의 이미지들로부터 나온 작품이다. 그의 작품 소재는 주로 작가의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수집된 아이디어들이 사용되는데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 사이에서,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불완전한 이야기가 철저하게 계획, 편집되어 시각화 된다.

Donghee Koo (b.1974)

- 4 *Tragedy Competition*
- 18 *Mess with One Guard and You Mess with Them All*
- 19 *Re-freshman*
- 20 *Re-freshman(2017)*

Donghee Koo creates installations, photography, and videos to speak about paradoxes or irrationalities arising from everyday life and language. While often utilizing or riffing off existing forms and structures, Koo hinders easy reads and instills ambiguity by randomly reconfiguring or deconstructing extant forms. To Koo, “video” is no different than a “tool” necessary for composing narratives, which allows her to present moments and emotions that are difficult to verbalize. Narratives conveyed in this way, that is, by assembling or deconstructing certain elements in a video form, often shatter the audience’s expectations or confuse them while simultaneously affording new interpretations. *Tragedy Competition* (2003) is a real-time, non-scripted video of 11 professional actors performing their best tearful interpretations of a tragic role in the format of a “competition.” Sculptural pieces, such as *Mess with One Guard and You Mess with Them All* (2012) and *Re-freshman* (2012), *Re-freshman(2017)* (2017) a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image, inspired by the notion of “absent images” inferred by misread sentences. Koo often gleans ideas from her everyday life and surroundings. However, from her personal time and space arise stories that are familiar yet awkward and incomplete, which Koo thoroughly scripts, edits, and visualizes into videos.

권오상 (b.1974)

8 Dan Electro

권오상은 동시대 조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독자적 방법론을 구축하며 조각의 정체성을 탐구해 왔다. 그는 '가벼움', '편리함'과 같은 현대사회의 속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조각과는 다른 새로운 현대 조각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의 작업은 현재까지 총 5개의 시리즈, <데오도란트 타입(Deodorant Type)>(1998-), <더 스컬프처(The Sculpture)>(2014-), <더 플랫(The Flat)>(2012), <뉴 스트럭처(New Structure)>(2016-), <릴리프(Relief)>(2016-)로 구성된다. <댄 일렉트로>(2010-2012)는 '데오도란트 타입'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권오상의 조각 연구 중 첫 번째 시리즈이다. 그는 조각은 무거워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자 '아이소핑크(강화 스티로폼)'로 형체를 만들고, 대상을 직접 찍거나 수집한 수백, 수천 장의 사진들을 덧붙여 가벼운 조각을 표방함과 동시에 새로운 재료를 제시하며 조각의 확장을 논한 바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조각의 큰 화두인 평면과 입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Osang Gwon (b.1974)

8 Dan Electro

Osang Gwon explores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sculpture medium, constructing a distinctive vision and methodology for contemporary sculpture. Gwon incorporates attributes of modern society, such as “lightness” and “convenience,” into his work to diverge from traditional definitions of sculpture and present a novel, contemporary visage of it. Gwon’s oeuvre comprises five series to date: *Deodorant Type* (1998-), *The Sculpture* (2014-), *The Flat* (2012), *New Structure* (2016-) and *Relief* (2016-). *Dan Electro* (2012-2012) is a piece in *Deodorant Type*, the first of Gwon’s five series of sculptural research. In this series, Gwon challenges the preconception that sculpture must be heavy by using “isopink” (reinforced foam) to craft forms. He then attaches hundreds, even thousands, of found and original photographs onto the foam to create “lightweight” sculptures and simultaneously push the parameters of the medium itself. Through such endeavors, Gwon addresses the foundational question of sculpture concerning the flat and the dimensional.

김인배 (b.1978)

17 연산자

김인배는 조각과 드로잉을 통해 기존의 익숙한 개념과 인식에 도전하고 질문하며 눈앞의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하는가에 대해 탐구해 왔다. 작가는 인체 조각을 변주하는 작업을 통해 구체적 묘사 없이 표현된 얼굴 덩어리의 양감, 공간 안을 가로지르는 선적인 요소를 내포한 신체의 리듬을 나타낸다. <연산자>(2009)는 카메라 삼각대에 꽂힌 인체 두상 조각을 통해 높이와 방향, 배치에 따라 형성되는 여러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대상이 생략되고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만든다. 신체이면서 동시에 조형의 기본 요소(점, 선, 면, 양감, 질감 등)의 일부를 표현하는 그의 작업은 사회 문화적인 기호가 되거나, 추상적인 매개체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나아가 공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순환하며 주체와 객체가 일시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와 의미를 형성하게 한다.

Inbai Kim (b.1978)

17 Operator

Inbai Kim questions ordinary ideas and perceptions through his sculptures and drawings, exploring how we recognize and comprehend objects we experience with our senses. Kim’s interpretations of figurative sculptures represent, for instance, the volume of a human face empty of fussy delineations and the linear rhythm of a body that activates space. *Operator* (2009) is a work that shows various relationships formed according to height, direction, and arrangement through sculptures of the human head inserted into the camera tripod. Kim’s work, despite the deliberate omissions and reductions of the subject, engenders a different stratum of meaning. The sculptures, representing the human figure and the fundamental elements of form (point, line, plane volume, texture and etc.), can, in one context, be a sociocultural symbol and, in another, a mere abstract conduit. Furthermore, they create continuous movement within a space, evoking a fleeting yet complicated reconfiguration, a spiral,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박광수 (b.1984)

7 부스러진

박광수는 잉크나 먹, 아크릴을 사용해 점과 선을 여러 겹 중첩하는 드로잉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반복적인 선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일상 속 단편이 확장된 풍경인 동시에 그가 상상한 이미지의 파편이다. 그는 초기에 자신이 상상한 사건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그려서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점차 그리는 대상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의 물리적인 크기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무 막대와 스펀지를 잘라 만든 수제 펜으로 그리는 그의 작업은 몸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담아낸다. 주요 도구인 수제 펜은 신체와 작업을 더욱 가깝게 하며 쉬이 사라지는 순간과 그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낸다. <부스러진>(2017)은 반복적인 선을 통해 숲을 그려 온 그의 기존 작품 <형제나무>(2015), <검은 숲속>(2017) 등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갈라지고 부스러지는 현상을 시간의 흐름, 늘어감, 소멸의 징후로 느끼며, 이를 무수한 검은 선의 집합과 농담의 변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림 안에서 인물과 풍경이 사라지고 드러남을 표현하고 있다.

Gwangsoo Park (b.1984)

7 Crack

Gwangsoo Park creates drawings by layering countless dots and lines in drawing ink, sumi ink, or acrylics. Images emerging from these repetitive lines are everyday scenes expanded into landscapes and fragments of Park's imagination. If, in the past, Park's main goal was to depict his imagination as objectively and completely as possible, today, he gradually pays more attention to the subjects of his work themselves. Park manufactures his own pens with wooden handles and sponge tips as a solution to the limited sizes of readymade pens. His main tools, these apparatuses, capture even the subtlest tremors of his body. Moreover, they bridge the distance between his body and the canvas, embodying and delivering his sincerity toward ephemeral moments. *Crack* (2017) is a series,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works, *Brother Tree* (2015) and *Dark Forest* (2017), in which Park depicts forests using his repetitive line technique. In *Crack*, Park portrays fissures and crumbling as signs of the passing time, aging, and evanescence, as he builds up numerous black lines to varying depths and densities. In the finished works, these elements manifest as figures and landscapes in different degrees of disappearance or emergence.

배윤환 (b.1983)

5 스튜디오 B로 가는 길

배윤환은 서술적 회화에 기반을 두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가 작은 사이즈의 드로잉이나 거대한 롤 캔버스에 이어가는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면서도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삶에 대한 고민과 태도, 욕망과 상상을 다각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가 그리는 이미지는 서로 긴밀하게 이어지고 설명된다기 보다는, 분절되고 모순된 상태로 불완전하고 느슨한 관계에 놓여 미완의 구조로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스튜디오 B로 가는 길>(2018)은 회화 작품을 기반으로 영상으로도 만들어진 작업으로, 작가는 사적인 공간인 작업실을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 놓인 이상향의 모델로 재조명한다. 한 개인이 예술가로서 추구하는 이상향으로의 경로는 <스튜디오 B로 가는 길>의 주인공이 남기는 발자취를 따라 드러난다. 작업실에서 반복되는 동작들은 패턴과 리듬을 만들며 그 안에서 부딪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며 작업실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예술가의 노동과 그것을 통한 표현, 그리고 태도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Yoon Hwan Bae (b.1983)

5 Road to Studio B

Yoon Hwan Bae's practice is rooted in narrative painting. The stories Bae tells in small drawings and large-scale unstretched canvases are about his own identity and, at the same time, multifaceted representations of his contemplation on life, desires, and imaginations within society. The images he paints are rather fragmented, conflicting, and suspended in loose, incomplete relationships rather than tightly knit and explicative. In *Road to Studio B* (2018), which exists as a painting as well as a video based on the painting, Bae reimagines his private studio as a utopic realm situated on the border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An individual artist's path to utopia unfolds along the footsteps of the protagonist of *Road to Studio B*. The repetitive actions in the studio become patterns and rhythms that collide or harmonize with one another. These movements allude to the artist's labor, the artistic expressions made possible through the labor, and his reflective attitude toward it within the space of the studio.

성낙희 (b.1971)

14 Peak

성낙희는 다양한 색상과 점, 선, 면 등의 조형의 기본요소를 이용하여 추상적 이미지를 탐구한다. <Peak>(2007)은 2011년 두산갤러리 전시 «With in»에 출품한 작품으로 <Tween>(2007)과 한 쌍을 이루는 작품이다. 작품은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 심리 상태와 시간 속에서 그려진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장 안(within)에서 하나로 모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작가의 내면으로 이어져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는 종이와 캔버스, 벽 등 다양한 장소에 색, 선, 면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토대로 화면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표현 과정 속에서 즉흥적인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기하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입체적 공간을 이차원의 평면에 보여주고 있다.

Nakhee Sung (b.1971)

14 Peak

Nakhee Sung uses the fundamental elements of form—colors, points, lines, and planes—to explore abstract imagery. *Peak* (2007), which were showcased in the 2011 DOOSAN Gallery exhibition titled *With in*, is paired with *Tween* (2007). Through these works, Sung tried to bring together numerous artworks created in different physical locations, mental spaces, and moments in time and demonstrate how they converge within the gallery as a coherent representation of the artist's inner world. Sung organically arranges and composes images on various surfaces, such as paper, canvas, and walls, using the most elemental components of form, such as colors, lines, and planes. In this process, Sung spontaneously harmonizes rational decisions and intuitive reactions to present geometric yet dynamic spaces on a two-dimensional plane.

오민 (b.1975)

1 ABA Video

오민은 음악의 구조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해 영상, 퍼포먼스 등의 매체로 실험하며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한다. 음악과 그래픽 디자인이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언어인 작가는 시간과 개념의 구조를 만들고 정리하는 도구인 두 언어를 통해, 음악에 내재된 구조와 형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시도를 한다. <ABA Video>(2016)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1악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ABA> 연작—ABA Diagram, ABA Video Score, ABA Video, ABA Performance—(2016-) 중 한 작업으로, 인물과 일상의 물체들이 등장하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음악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ABA> 연작은 소나타의 구조인 제시-발전-재현의 형식을 가져오며 음악이 가지는 선율의 아름다움 보다는 그 이면의 소리를 구성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작가는 이를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와 자신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그 구조를 관찰, 나열하고 규칙을 만들어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로서 반복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실패가 예견된 작가의 반복되는 집요하고 치밀한 실험의 과정 속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

Min Oh (b.1975)

1 ABA Video

Min Oh creates videos and performance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ranslating musical structures into other languages and, more than that, contemplates what significance such translation has in life. Oh, a fluent speaker of both musical and graphic design languages, which are both languages of temporal and conceptual arrangement/organization, extracts the structural and formal beauty inherent in music, recognizes their limitations, and endeavors to convert them into other languages. For instance, *ABA Video* (2016), a part of the *ABA Series—ABA Diagram, ABA Video Score, ABA Video, and ABA Performance—* (2016-) a sequence of work based on the first movement of Rachmaninoff's Piano Sonata No. 2, visualizes musical structure through carefully arranged scenes of figures and everyday objects. The series itself borrows the exposition-development-recapitulation format of sonatas, emphasizing the structure of sonic arrangement rather than the beauty of a melody. Oh incorporates these musical structures into the realm of the everyday and repeatedly observes, arranges, and systematizes them as an attempt to quash anxiety caus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a seemingly impossible task. However, within Oh's persistent and methodical experiments, despite anticipated failure, arises a hidden beauty.

이형구 (b.1969)

10 Altering Features with H-WR

이형구는 자신의 몸을 기반으로 감각하는 주체로서 조형적 실험을 한다. 그는 레진, 플라스틱, 페이퍼 마쉐, 브론즈, 납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조형작업과 더불어 사진과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몸에 대한 입체적인 탐구를 해왔다. 신체 감각을 교란시켜 변형하거나 가상의 신체나 장치를 만들고(〈The Objectuals〉 시리즈(2000-), 〈ANIMATUS〉 시리즈(2005-)), 다른 동물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익숙한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매체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Eye Trace〉 시리즈(2010-), 〈MEASURE〉 시리즈(2014-)) 이후 인간으로서 몸을 인식하는 규모의 감각에 다층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Gallus〉(2015)와 〈Kiamkoysek〉(2018), 〈Psyche up panorama〉(2019), 〈X〉(2019)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거쳐 전시장 내외부에서 선보이는 대형 설치 〈X variation〉(2021)과 〈Nitrodelight〉(2021)에 이르렀다. 두산갤러리 소장품 〈Altering Features with H-WR〉(2007)는 〈The Objectuals〉 시리즈 중 하나이다. 〈The Objectuals〉 시리즈에서 작가는 머리카락, 손, 신체 각 부분에 착용할 수 있는 의학기구와 유사한 장치를 만든다. 이는 오목, 볼록 렌즈, 알루미늄 포일 등을 이용해 눈, 입, 치아 등 신체부위를 비정상적이고 인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극대화한다. 유사과학적 기구들은 신체의 본질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외부 시선 속에서만 존재하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는 내적 욕망이라는 관념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작가의 가상적 세계를 보여준다.

Hyungkoo Lee (b.1969)

10 Altering Features with H-WR

Hyungkoo Lee focuses on his own body as the sensing subject as he conducts sculptural experimentations. Lee's exploration of the body spans a range of mediums and materials, from sculptures—made of resin, plastic, paper mache, bronze, and lead—to photography, video, and performance. In his past works, Lee had reconfigured the human sensory functions to morph the body or invent fictional appendages (*The Objectuals* (2000-) and *ANIMATUS* series (2005-)) or borrowed other animal's sensing mechanisms to hint at the human potential of breaking away from its carnal limitations and expanding into other "mediums" (*Eye Trace* (2010-) and *MEASURE* series (2014-)). Subsequently, he delved into the layers and ambit of human self-perception in *Gallus* (2015), *Kiamkoysek* (2018), *Psyche up panorama* (2019), and *X* (2019). Eventually, he embarked on large-scale indoor and outdoor installations, *X variation* (2021) and *Nitrodelight* (2021). A part of DOOSAN Gallery's collection, *Altering Features with H-WR* (2007), belongs to *The Objectuals* series. In *The Objectuals*, Lee fabricates pseudo-medical apparatuses meant to be worn on different body parts, such as the head or the hand. Comprising convex or concave lenses and aluminum foil, these apparatuses distort and exaggerate the appearance of the eyes, the mouth, the teeth, and other body parts in a grotesquely artificial way. However, these pseudo-scientific devices do not interfere with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body. Instead, the distorted bodily images, which exist only externally to the body, allude to Lee's fictional world, where the concept of inner desire occurs as objective phenomenon.

임영주 (b.1982)

12 요석공주

임영주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구조에 대한 관심을 작업으로 이어왔다. 작가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전설, 미신, 유사과학, 유사 종교에 대한 이야기와 장면들을 수집하고 기록해 영상, 회화, 설치, 출판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한다. 촛대 바위 끝에 해가 걸치는 장면을 찍으려는 사람들, 금을 ‘요정’으로 의인화하거나 운석을 발견하면 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세상을 맴도는 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그의 작업은 믿음의 근거나 확실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 효과, 믿음이 변화된 상징,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 확고 해져 버린 상황을 특유의 설교 음성과 같은 내레이션과 함께 보여준다. <요석공주>(2018)는 한국의 고대 역사와 설화, 불교 관련 기록 등이 다양하게 수록된 『삼국유사』 속 이야기 중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기록을 차용해 만들어진 작업이다. 둘의 사랑 이야기를 주축으로 웹 상에 떠도는 현대의 여러 이야기를 덧입혀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영상은 ‘소리’에 주목하며 인물들이 무언가를 믿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세심히 조율된 화면으로 보여준다. 화면 곳곳에 파편적으로 삽입된 비유나 상징적인 장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Youngzoo IM (b.1982)

12 Princess Yoseok

Youngzoo IM creates research-based work about the structures of belief within the human psyche. IM collects and documents stories and scenes about legends, superstitions, pseudo-sciences, and pseudo-religions in all corners of society and presents them through various mediums, including video, painting, installation, and publication. IM garners mysterious and folkloric stories of people who are motivated by peculiar beliefs, such as shutterbugs who are waiting to capture the perfect moment when the sun hangs at the tip of a candlestick rock, people who worship gold as “fairies,” or followers of the auspicious power of meteorites. IM’s work, however, never strives to explore the underpinnings or explanations of these beliefs. Instead, it probes the very effects that make people believe in things, signs of changes in faith, and the process of a belief permeating and becoming established in a community. These scenes often include sermon-like voiceover narrations. *Princess Yoseok* (2018) is a piece inspired by the tale of Princess Yoseok and Master Wonhyo in *Samguk-yusa*, a book of ancient Korean history, folklore, and Buddhist traditions. This video recreates the love story between the two characters by interweaving the original lore with other contemporary narratives found online. The video’s meticulous and refined scenes focus on “sound” as the driving force that moves people when they come to believe in something. The video intersperses metaphors and symbols throughout, like fragments, casting question after question about the beliefs that underlie the stories.

장서영 (b.1983)**9 Circle**

장서영은 영상, 텍스트, 조각 등의 매체를 통해 불투명한 사회 구조 안에서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비가시적이어서 무효화되는 주체의 형태와 형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왔다. 그의 작품에는 생명과 죽음,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 등과 같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중간 지점에서 소외, 결핍된 존재들이 화자로 등장한다. <Circle>(2017)은 나선형 계단을 끝없이 걸어 내려가는 인물의 뒷모습과 반복적 몸짓을 지속하는 퍼포머가 등장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작가가 설정한 이 제한적 상황은 낯설고 불안한 정서를 극대화시키며, 반복 재생되는 영상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영상 속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구성한다. 작가의 작업은 불확정적 좌표에 위치한 존재성과 비가시적인 신체, 그리고 시간성에 대해 살펴봄, 사회의 가치 체계 속에 실존하기도 실존하지 않기도 한 당신과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Seo Young Chang (b.1983)**9 Circle**

Seo Young Chang creates videos, texts, and sculptures to grapple with the forms and configurations of beings that are considered nonexistent, unrecognized, or invalidated in the opaque structure that is society. The subjects of Chang's work are beings caught in between binaries (life and death, beginning and end, past and future), alienated, and reduced. *Circle* (2017) shows a video on loop, capturing the back of a performer descending a spiral staircase while repeating a set of motions. Such restrictive scenario set by the artist amplifies a sense of discomfort and anxiety, the perpetual loop determining that the protagonist will never escape the realm of the video. Chang's work represents existences that are off the grid, invisible bodies, and temporality. Ultimately, she questions the identities of us all, who exist and yet do not exist within the shifting values and systems of society.

장지아 (b.1973)**15 고정된 오브제**

장지아의 작업은 재료이자 감각체계로서의 몸을 다루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온 인간의 욕망을 퍼포먼스, 사진, 영상, 설치 등으로 드러낸다. 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그의 작업은 사회적 통념이나 규율, 금기를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현대인과 세상의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고정된 오브제> 시리즈(2007)는 오줌과 소금 결정이 달라붙은 오브제를 촬영한 사진 연작이다. 픽서의 성분이 오줌과 비슷하다는 데에서 착안한 이 작품은, 끓는 소금물에 오브제를 담그고 건조시켜 표면에 결정을 만들고 오줌과 방습 코팅을 한다. 작가는 쾌와 불쾌, 폭력성과 아름다움 등의 상반된 감각이 공존하는 작품을 통해 인간 내부에 잠재된 본능을 되돌아보도록 만든다.

Chang Jia (b.1973)**15 Fixed Object**

Chang Jia navigates the body both as an artistic material and as a sensory system, laying bare societal taboos and human desires through the mediums of performance, photography, video, and installation. Stemming from her interest in the body, Chang's work battles with the modern sentiments and perspectives that blindly and without criticism accept social norms, regulations, and prohibitions. *Fixed Objects* (2007) is a photography series of objects covered in urine and salt crystals. Inspired by the chemical resemblance between urine and photographic fixer, Chang submerges objects in boiling salt water, dries them until crystals form on the surface, and then glazes them with urine and waterproof coating. Through works that encompass binaries, such as pleasure and discomfort, violence and beauty, Chang pushes viewers to reflect on the primal instincts inherent in the human mind.

장파 (b.1981)

12 <Brutal Skins>를 위한 드로잉

장파의 작업은 강렬한 색채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음으로써 작품과 관객, 즉 객체와 주체의 필연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둘 사이의 '시선'을 관찰한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의 관찰자로서, 또한 여성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넘어 남녀, 자아와 타자의 구분에 대한 질문, 태도를 회화, 영상 및 설치로 실험한다. <Brutal Skins> 시리즈(2016-2018)는 '여성 괴물'을 소재로 자궁의 의미와 형상을 빌려 제작한 벽면 설치 작업이다. <Brutal Skins>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하고 액화되어 변형된 여성의 신체는 남성 중심적 시각과 서사에서 소외된 여성의 억압된 감각을 자극적인 색과 역동적인 붓터치로 분출하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여성의 몸을 괴물과 같이 표현한 작품은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시선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욕망하는 주체'로 발전시킨다.

Jang Pa (b.1981)

12 Drawings for <Brutal Skins>

Jang Pa uses eye-catching colors and grotesque imagery in her paintings to talk about the "gaze" that exists between the art and the viewer and the inherent roles of subject and object within that dynamic. Jang Pa studies her identity as a woman and as an observer within the sphere of her own surroundings and, further still, exa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inary of genders, the self and the other, through the mediums of painting, video, and installation. The *Brutal Skins* (2016-2018) series is a wall installation that introduces iterations of "she-monsters," which are derived from the form and essence of the uterus. Portrayed in intense colors and vigorous brushstrokes, the grotesque, liquefied, and mutated figures in *Brutal Skins* represent the alienation experienced by women in a male-centric narrative and challenge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femininity in our society. The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body as a monstrous being critiques the social gaze that objectifies women as targets of desire and, more than that, elevates women into the subjects of desire themselves.

전소정 (b.1982)

2 따뜻한 돌

전소정은 일상에서 만난 타인의 삶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에 연극적 무대와 퍼포먼스, 혹은 고전 텍스트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한 내러티브를 개입시켜 사진, 설치, 영상작품을 만들어 왔다. 그는 줄광대, 기계 자수사, 간판장이, 피아노 조율사, 해녀와 같은 삶과 예술의 경계에 서 있는 일상의 전문가들을 통해 예술가의 태도에 대해 사유하고 고민하는 작업을 지속한 바 있는데, <따뜻한 돌>(2015)은 수석가의 삶을 통해 예술가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수행과도 같은 장면들을 통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Sojung Jun (b.1982)

2 Warm Stone

Sojung Jun weaves the diverse stories of her daily acquaintances with theater and performance, or with her adaptation or reinterpretation of classical texts, to create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videos. Jun has conveyed her contemplation on the role of artists through her works about professionals who straddle everyday life and art, such as street performers, machine embroiderers, sign painters, piano tuners, and haenyeos (female divers). Among related work is *Warm Stone* (2015), which explores the artist-subject relationship through the life of a stone connoisseur. Through these scenes of seemingly ordinary yet oddly ritualistic actions, Jun draws us to introspect and reflect on the surroundings we inhabit.

정지현 (b.1986)**6 저편의 리듬**

정지현은 도시 환경에 부유하는 부산물과 산업 자재로부터 조각의 기능과 움직임을 배우고 연기, 빛, 바람, 소리 같은 보이지 않거나 사라지는 물리적 움직임으로 조각을 만들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저편의 리듬>(2014)은 3.5m 흑연 바(bar) 속에 12개의 카운터를 넣어 설치한 작업이다. 각자의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계량기의 숫자는 지구 저편에서 태어나고 사망하는 인구의 수를 나타낸다. 이는 관객에게 현실 이면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순적 상황, 존재하지만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 혹은 고정되지 않은 실체를 붙잡으려는 무모한 태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빠르게 바뀌는 가변적인 현실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기력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Jihyun Jung (b.1986)**6 Distant Rhythm**

Jihyun Jung gleans the function and motion of his sculptures from urban debris and industrial materials and creates work using transient movements, such as smoke, light, wind, and sound. *Distant Rhythm* (2014) is an installation piece comprising a 3.5-meter-long graphite bar with 12 counting devices embedded within it. The numbers on each of the clicking counters represent the number of people being born and dy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This piece, hence, functions as a device that compels the audience to press their ears to distant realities and contemplate what exists on the other side. On the other hand, it is a metaphor for contradictory happenings in reality, extant yet barely perceptible situations, or the reckless desire to capture something elusive. Through this piece, Jung sheds light on the despair individuals experience in the face of a rapidly shifting and mutable reality and examines how this effect influences and molds one's life.

정희승 (b.1974)**11 Untitled**

정희승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물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아는 걸까'라는 질문을 품고 반복적으로 사물의 외형을 기록하며 사물의 본질을 실험해 왔다. 사물이 정물화된 모습을 담은 <Still Life> 시리즈(2009-2014) 속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카메라에 담긴 대상의 모습은 마치 무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외형을 기록하는 사진에서 더 나아가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그의 작업은 사진과 공간의 관계로 사유를 확장시킨다.

Heeseung Chung (b.1974)**11 Untitled**

Heeseung Chung jumps off the question, "How well do we truly understand objects we consider familiar to us?" and experiments with the idea of "essences" by repeatedly photographing an object. In the series *Still Life* (2009-2014), which portrays objects that have become still lives for an artist, transient moments become eternal through Chung's camera. Chung's photography represents the outer appearance of objects yet guides us to look into their quintessence, expanding our perception beyond two-dimensionalit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hotography and space.

차재민 (b.1986)

3 안개와 연기

차재민은 그간 도시개발, 개발현장, 도시인의 욕망과 소외, 집단 시위, 억압 등 현대사회의 징후들을 상징적으로 풀어 내는 영상작업을 선보여 왔다. <안개와 연기>(2013)는 일종의 로드무비로서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한다. 경운기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며 시작되는 영상은 탭댄서, 부조리한 라디오 방송과 함께 흐르는 신도시 풍경을 지나 바다로 향하는 어부로 이어진다. 밤에서 아침으로 흐르는 시간 속 신도시와 구도시의 풍경이 번갈아 나오는 시선은 점차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으로의 이동이라 하겠다. 차재민의 영상작업은 사회의 갈등이나 불화에 주목하지만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단 한 마디 말로 의미가 소비되어 버리지 않도록 은유적인 우회방식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이면의 본질을 환기하여 개인과 타자의 관계 속에서 윤리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Jeamin Cha (b.1986)

3 Fog and Smoke

Jeamin Cha symbolically reinterprets modern society's byproducts, such as city development, construction sites, urban desires, alienation, mass protests, and oppression, in her videos. *Fog and Smoke* (2013) is a type of road film set in a construction site of Songdo International City, Incheon, where work had come to a halt due to the economic and real estate crisis in Korea. The video kicks off with a view of the city from a farm vehicle, passes a tap dancer, shows a sequence of the city renovation dubbed by an absurd radio broadcast, and ends with a fisherman headed to the sea. The alternating views between the new and old cityscapes while the night turns into morning seem to move from a macroscopic to a microscopic scale. Cha's videos focus on social conflicts and disharmonies but are often indirect and allegorical rather than explicit—an effort to avoid a single scene or word representing an entire baggage of meaning. Through this method, Cha alludes to the essence lying on the other side of the screen and explores ethical questions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최윤 (b.1989)

16 막다른 길 걷기_취구멍

최윤은 통속적 이미지와 그에 숨겨진 집단적 믿음의 상투성에 대한 관심을 작업으로 이어온다. 그는 길거리나 공공장소, 대중문화 사이를 떠도는 평범하고 진부한 이미지를 수집, 변종하여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한 사회에서 양산된 통속적인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을 심어주는지를 탐구하는데, <막다른 길 걷기_취구멍>(2020)은 2020년 두산갤러리 뉴욕에서의 개인전 《막다른 길 걷기》에 출품한 작업 중 하나로 뉴욕의 거리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그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시위와 팬데믹으로 상점들이 창과 문을 합판으로 막아 시야가 막혀버린 뉴욕의 거리를 경험하면서, 항상 바라보던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된 상황과 방향을 잃고 한 곳에 잠시 멈춰진 시간을 고찰한다. 그동안 최윤은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시'와 그 메시지들의 부산물이 쌓여 새롭게 바뀌는 '갱신'의 방식을 작품에 사용하며 지금 우리의 위치에 대해 질문해 왔다. 이 작업 역시 그러한 질문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제 발을 쫓아 막다른 길을 맴돌고 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방향 감각으로 걸어 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Yun Choi (b.1989)

16 Walking the Dead End_rathole

Yun Choi explores popular imagery and the conventions of collective stereotypes concealed in them. Choi collects and mutates ordinary, clichéd images from streets, public spaces, and pop culture to create videos,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Choi's work delves into how conventional images impart certain notions to people in society. For instance, *Walking the Dead End_rathole* (2020), a piece from DOOSAN Gallery New York solo exhibition titled *Walking the Dead End* (2020), is Choi's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ndscape and social atmosphere she encountered in New York City. Walking the streets that were visually obscured, with storefronts and windows boarded up due to protests and the pandemic, Choi experienced a place where the usual sights had vanished, and time was at a standstill. In questioning humanity's current position through art, Choi has engaged methods of "uploading" to deliver messages to an audience that results in "updates" through byproducts of those messages. The above piece, too, is an extension of such inquiry, which suggests that when we find ourselves at a dead end, we must look outside the box to continue with an "updated" sense of direction.

함진 (b.1978)

22 *Untitled 13*

23 *Untitled 23*

함진은 먼지나 죽은 벌레, 알약, 손톱 등 주변에 버려진 작은 오브제 및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보기 힘든 초소형 조각을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바늘이나 이쑤시개와 같은 일상용품을 도구 삼는 작가는 독특한 내러티브와 상상력을 응축시킨 작업 세계를 선보인다. 두산갤러리 소장품 <Untitled> 시리즈(2013)는 검은 점토만을 사용한 반추상 조각이다. 그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점토로 순간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작품으로 연결, 표현함과 동시에 색을 최소화함으로써 형태와 재료의 물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야만 형상이 보이는 그의 작업 안에는 사람의 얼굴에서 뿔어져 나온 정체불명의 생명체, 뉴욕의 건물이 줄지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의 도시 시리즈 등이 보인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주변 환경의 모습이나 다양한 생각을 즉흥적이고 유희적으로 담아,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통해 작업을 완성한다.

Ham Jin (b.1978)

22 *Untitled 13*

23 *Untitled 23*

Ham Jin is well-known for making nearly invisible micro-sculptures using polymer clay and discarded worldly objects, such as dirt, dead insects, pills, and fingernails. Using simple everyday tools like needles and toothpicks to create art, Ham presents a compact world of strange narratives and imagination. A part of DOOSAN Gallery's collection, the series *Untitled* (2013) is a semi-abstract sculpture made solely of black clay. In this piece, Ham uses light and soft clay to quickly translate fleeting ideas into tangible works and simultaneously reduces color to focus on the form and properties of the material. In the minutiae of Ham's sculptures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from up close, one can discover scenes such as mysterious life forms sprouting out of a human face and the densely aligned skyscrapers of New York City. As such, Ham intuitively and humorously captures experiences and moments in everyday life and encapsulates them in his sculptures through processes of intense imagination.

황수연 (b.1981)

21 *색이 섞이는 날*

황수연은 다양한 재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에 관심을 갖고, 그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강조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초기엔 가볍고 흠여지는 성질의 모래를 본드와 섞거나, 알루미늄 호일을 뭉치고 망치로 두드려 무겁고 견고한 물질로 변화시켜 조각을 만드는 식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의 '재료'에 대한 관심과 탐구자적 태도는 각 작품에 고유한 정서와 성격을 부여하며 기존의 성질을 벗어나거나 특이한 형태의 조형물을 탄생시킨다. 그 중에서도 그가 오랜 기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물질은 종이이다. 두산갤러리 소장품 <색이 섞이는 날>(2019) 역시 작가의 종이 작업 중 하나로, 그는 옷을 재단할 때 사용하는 곡선자의 둥근 선들을 따라 종이를 접고, 자르고, 붙여 나가길 반복하면서 납작한 종이를 동물, 식물과 닮은 조각으로 탄생시킨다. 조금씩 진화하듯 변화를 거듭해 나아가고 있는 종이조각의 다양한 형상들은 서로를 닮고, 이어지며, 비어 있는 내부를 감쌌으로써 그 모양이 어디로부터 왔을 지 질문을 던진다.

Sue Yon Hwang (b.1981)

21 *The Day Mixed Color*

Sue Yon Hwang focuses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and creates works that either transform or accentuate those qualities. In her earlier explorations, Hwang transformed light and malleable materials into solid sculptures by mixing glue with sand or crumpling and hammering aluminum foil. Hwang's fascination with materiality and investigative attitude culminates in sculptures that are each unique in sentiment and personality, where materials are propelled beyond their innate characteristics or transformed in unexpected ways. Among many materials, paper has held a central role in Hwang's practice. A DOOSAN Gallery collection, *The Day Mixed Color* (2019) is one such example. In this piece, Hwang folds, cuts, and assembles paper along the curves of clothes-making rulers, each repetition transforming the flat paper into sculptures that resemble animals and plants. The ever-evolving paper forms, the hollow sculptures that sometimes echo or extend one another, prompt us to question the origin of their shapes.